어간 내부 장애음의 통시적 탈락과 첨가*

이상신**

〈차 례〉

1. 서론
2. 탈락·첨가의 판별과 쌍형어의 신·구형
3. 탈락과 첨가의 실제
4. ‘벌써’와 ‘먼저’의 경우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른바 쌍형어의 두 어형 중 어느 것이 구형 혹은 신형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 판별 기준에 따라 장애음의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어형의 신·구형 판별을 시도하되, 특히 ‘벌써’와 ‘먼저’의 관련 형태들이 장애음의 통시적 탈락 및 첨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의 관련 형태들과는 달리 ‘벌써’의 관련 형태들은, 장애음의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형태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어휘들과는 다른 존재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방언형을 포함한 ‘벌써’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256).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관련 형태들 중 장애음을 가진 쪽과 가지지 않은 쪽의 양쪽은 어원적으로 그 구성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가능성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추론에는 방언형의 분포가 그 한 근거로 제시된다.

주제어: 장애음, 비음, 공명음, 탈락, 첨가, 방언형

1. 서론

본고는 이른바 쌍형어의[1] 두 어형 중 어느 것이 구형 혹은 신형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 판별 기준에 따라 장애음의[2]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어형의 신·구형 판별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벌써'와 '먼저', 그리고 그 외의 몇몇 어휘의 문헌형과 방언형을 관찰하여, 어떤 방언형이 탈락과 첨가 중 어느 쪽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혹은 탈락이나 첨가와는 관련 없는 존재인지 하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 본고는 방언 자료의 해석에 크게 기대려 한다. 즉 본고는 입수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방언지도를 작성하여 방언형의 분포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지도들 간에 나타나는 특정 변화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한 뒤, 그 일치 여부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를 논의하려 한다. 이 논의를 통해, 같은 변화에 의한 방언형이라면 그 방언 지도 역시 유사

---

1) '쌍형어'는 의미가 같으면서 형태가 유사하고 그 출현환경이 배타적이지 않은 두 어형을 말한다(安秉禧 1978:39-49, 이현희 2002:143).

2) 장애음의 종류에 따라, 특히 파열음인지 파찰음인지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는 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심사자 중의 한 분이 주셨으나 이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설 하에 특정 변화의 적용 여부를 가늠하고 나아가 쌍형어의 신·구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용할 자료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특정 어휘에 얽힌 음운사적 문제를 풀자면 우선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인데, 이는 국어사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와 현대국어를 보여주는 방언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즉 본고의 논의를 위한 자료는 크게 방언자료와 문헌자료로 나눠지는 것이 다. 전자는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韓國方言資料集』과 기존의 방언자료집 및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후자는 劉昌惇(1964)의『李朝語辭典』과 南廣祐(1997)의 『敎學 古語辭典』, 그리고 기존의 어원사전 등을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우선 쌍형어의 신·구형 판별 기준을 2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탈락 혹은 첨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몇 단어를 대상으로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추론을 3장에서 시도해 본다. 4장에서는 '벌써'와 '먼저'가, 4장까지 보아왔던 장애음의 탈락 혹은 첨가의 쌍들과 같은 유형의 것인지를 관찰하도록 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짚도록 한다.

2. 탈락·첨가의 판별과 쌍형어의 신·구형

곡용과 활용으로 공시음운론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면 탈락과 첨가의 판별은 명료하다. 공시음운론에서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대치, 탈락, 첨가, 도치, 축약으로 나눠질 것인데, 변동 전후의 음소와 그 수를 비교하면 적용된 음운 현상이 탈락과 첨가 중 어느 것인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즉 입력부와 출력부의 비교를 통해 무엇이

탈락했는지 또 무엇이 첨가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시음운론의 세계에서는 탈락과 첨가의 판별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변화 전의 상황을 모르면서, 관찰하고 있는 시기의 언어 자료에 어떤 음 하나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공존할 경우, 전자가 첨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후자가 탈락에 의한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를테면 가상의 자료, '소라'와 '소롸'가 특정 시기에 혹은 방언적으로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공존을, 첫 음절 '소'의 'ㅗ'에 영향을 받은 '라'가 '롸'가 되었다고, 즉 활음 첨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소롸'의 두 음절에 모두 있는 'ㅗ(o, w)' 중 뒤의 'ㅗ(w)'가 탈락했다고, 즉 활음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겠지만, 선대형이 없는 경우의 탈락과 첨가의 구분은 쉽지는 않지만, 구분의 큰 기준은 있다. 첨가라고 하려면, 첨가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X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을 a와 b라 할 때 X와 a 혹은 b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등과 같은 것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들어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변화를 탈락 쪽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또, 이를테면 위에서 든 '소라'와 '소롸'가 공존하는 경우도 전자에서 후자로 변했다면 음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므로 발음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도 탈락과 첨가 판별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위 둘은 후자에서 전자로 변했다고, 즉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탈락과 첨가의 판별이 쉽지 않은 것은 변화 전, 즉 선대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으므로, 통시적인 탈락과 첨가는 그 선대형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겠다.[3)]

---

3) 물론 탈락인지 첨가인지 하는 그 소속의 문제는 명확하더라도 그 원인이

탈락이든 첨가든 그 과정이 명확한 경우도 물론 많다. ‘바느질, 부삽, 부나비’ 등에 일어난 유음 탈락이나 ‘던지-(<더지-)’ 등에 일어난 ‘ㄴ’ 첨가 등은 변화 전의 형태론적 구성이나 형태들 간의 선후 관계가 확실하므로 변화의 과정이 명확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예들은 탈락에 의한 것인지 첨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인데, 지금부터 잠시 이들 이른바 쌍형어의 신·구형 판별 기준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의미가 같으면서 형태의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어형 A와 B가 있을 때 이 둘 중 어느 것이 선형(先形)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최초 출현 연대의 차이 혹은 어형의 사용 빈도 추이, 어원적 논리, 탈락과 첨가의 명백한 이유 혹은 변화 원인 및 과정의 보편성 정도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기적으로 두 어형의 최초 출현 연대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먼저 문증되는 형태로부터 나중에 문증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앞선 시기 1과 뒤의 시기 2가 있을 때, 시기 1의 경우에서는 모두 특정 형태만 보이고 시기 2의 경우에서는 다른 형태만 보인다면 시기 1과 시기 2의 교체기에 어형의 공존, 즉 쌍형어가 출현할 수 있겠는데, 이때의 쌍형어 중 시기 1의 형태로부터 시기 2의 형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형만이 쓰이다가 어떤 이유로 신형이 생겨나 구형과 신형이 공존할 경우, 다음 시기까지 살아남는 형태가 신형일 것임을 상정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논리이다.

나 과정 및 동기는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탈락이라 할 경우에도 원인과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桔”의 ‘도라지’와 ‘돌가지’의 경우, ‘돌가지’의 ‘ㄹ’ 뒤 ‘ㄱ’ 탈락, 즉 장애음 탈락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나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다. 또 첨가에 속하는 현상도 여럿 있지만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왜 특정한 시기에 첨가가 일어났는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특정 환경에서 일어나는 첨가의 동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원적인 설명이 가능할 경우에도 쌍형어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세국어에 공존했던 '프ᅀᅥ귀'(『月印釋譜』 20:45(『月印千江之曲』 365, 367장))와 '프ᅀᅥᆼ귀'(『月印釋譜』 10:117, 『楞嚴經諺解』 3:105)를 어원적으로 '플(草)+*서귀'로부터 온 것으로 본다면(李基文 2012:101) '프ᅀᅥ귀'가 구형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坐"의 '앚-'과 '앉-', "寘"의 '엿-'과 '엳-' 역시 어원에 입각한 설명으로 그 선후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예일 것이다(李基文 1964).[4]

마지막으로, 탈락이나 첨가 등의 특정 음운 변화가 일어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나 첨가로 보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일 것이고 따라서 그 선후관계 역시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를테면 '더디-'(投)로부터 '더지-'로 변한 뒤 한동안 '던지-'와 공존할 경우 이때 'ㄴ'의 첨가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고,[5] 또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남방언의 '멍크-'(止) 역시 '머크-'에 'ㅇ'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신(2008)에 따르면 '멍크-'의 'ㅇ'이 첨가에 의한 것인 까닭은 중부방언의 '멈추-'(止)가 중세국어의 '머초-'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머초->먼추->멈추-'의 과정이 명백하다면 '머크->멍크-' 역시 보편성의 관점에서 그 반대 방향, 즉 비음 탈락보다는 비음 첨가로 보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음운 변화가 일어났을 근거가 명백할 경우에는 쌍형어의 선후 관계를 쉽게 말할 수 있을

4) 물론 이들은 통시적인 생존의 양상 등에 의해서도 그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 후대에 비음이 있는 '앉-, 얹-'과 '푸성귀'형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5) 비음 'ㄴ'의 첨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를 테면 "投"의 '더지-'와 '던지-'는 'ㅈ' 앞에서의 비음 'ㄴ'의 첨가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소신애(2010) 참조). 변화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 변화는 '장애음>비음+장애음'으로 정리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본고의 탈락과 첨가의 문제가 복잡한 데 반해 첨가로 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명확하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탈락과 첨가의 판별 문제를 논하면서 쌍형어의 신·구형 판별 기준까지 간단히 논의해 보았으나 엄밀한 논의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논의라 하겠다.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 기준으로 쌍형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기본적이자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정도로만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기본 조건을 염두에 두되 현대국어 방언형의 방언 분포를 중시하면서 쌍형어에서 보이는 탈락과 첨가의 구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3. 탈락과 첨가의 실제

방언적 공존을 차치하더라도 동시대에 '비음+장애음'형과 '비음'형의 쌍형이 공존하는 것은 국어사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5세기의 쌍형어에 'ᄆᆞ니-'와 'ᄆᆞᆫ지-', '겨ᄂᆡ-'와 '견ᄃᆡ-'가 있었는데 李基文(1991:40-41)에 따르면 이들은 차별 없이 쓰이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한다. 이들 쌍에서 'ᄆᆞ니-' 등을 고형으로 보고 그 뒷자리에 장애음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ᄆᆞᆫ지-' 등을 고형으로 보고 장애음이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첨가된 자음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요, 후자의 경우에는 왜 특이하게 이런 탈락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李基文 1991:40-41)[6]과 같은 언급에서 이들 쌍형어에 적용된 탈락과

6) 劉昌惇(1971:47)은 전자의 관점에서 이들 쌍들의 형성을 보고 있고 許雄

첨가의 문제, 즉 구형과 신형 판별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예 외에도 "影"(그림자) 역시 중세국어에서 '비음+장애음'형과 '비음'형의 쌍형이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1) "影"의 중세국어형[7]
ㄱ. '비음+장애음'형: 그림제, 그림재, 그름제, 그름재
ㄴ. '비음'형: 그리메, 그르메

"影"을 제외하고 劉昌惇(1971:43-49, 124)을 참조하여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어 있는 공존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

(1957:258)과 박홍길(1998:21-25) 역시 그러하다. 이에 반해 "蜻"(잠자리)의 전남 방언형 '자마리'를 '잠자리'의 'ㅈ'이 탈락한 것으로 본 이기갑(1986:47)은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 全哲雄(1999:108)는 "先"(먼저)을 뜻하는 충북의 '머녀'를 '먼져'의 n과 y 사이의 'ㅈ'이 탈락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방언형으로 '혼자'의 방언형 '호냐'를 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후자의 관점에 있다.

7) "影"의 중세국어형과 그 이후의 형태 및 용례는 김태곤(2008:30-32) 참고.

8) 현대국어의 방언형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매우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몇 예를 들면 '그느다("젖먹이가 오줌이나 똥을 눌 때를 가리다.")'와 '긍구다('그느다'의 방언(평북), 金履浹(1981:76-77))', '지니다'와 '징기다('지니다'의 경주 방언, 김주석 · 최명옥(2001:626))'가 이런 예에 속한다. 그런데 '그느다'와 '지니다'의 'ㄴ'과 '긍구다'와 '징기다'의 'ㄱ'은 매우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느다'와 '지니다'의 'ㄴ'과 조음위치가 같거나 유사한 'ㄷ'이나 'ㅈ'이 아니라 'ㄱ'이 '긍구다'와 '징기다'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긍구다'와 '징기다'의 'ㅇ'은 이른바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것으로 무심히 보아 넘기기 쉬우나 '그느다'와 '지니다'의 'ㄴ'을 고려해보면, 만약 '긍구다'와 '징기다'에 있는 'ㄱ'의 탈락에 의해 '그느다'와 '지니다'가 나온 것이라면 'ㅇ>ㄴ'의 변화를 추가로 상정하여야 하며, 반대 방향 즉 장애음의 첨가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ㄷ'이나 'ㅈ'이 첨가되지 않은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ㄷ'과 'ㅈ'의 차이에도 흘려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입장에 있지 못하므로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2) 중세국어의 ‘비음+장애음’형과 ‘비음’형의 공존예[9]
ㄱ. ㄴㄷ:ㄴ - 건디다:거니다, 견딕다:겨닉다, 흔들다:흐늘다[10]
ㄴ. ㄴㄱ:ㄴ - 돋기다:드니다
ㄷ. ㄴㅈ:ㄴ - 묻지다:무니다
ㄹ. ㅁㄱ:ㅁ - 염글다:여믈다, 범글다:버믈다, 졈글다:져믈다

앞 장 뒷부분에서 간단히 논한 신·구형 판별기준에 의하면, 위의 예들 중 (2ㄱ)과 (ㄷ)은 장애음이 있는 형이 신형이라고, 즉 장애음 첨가에 의해 쌍형어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모두 ‘비음+장애음’형이 살아있으므로 ‘비음’형이 구형이고 ‘비음+장애음’형이 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2ㄴ)과 (ㄹ)의 경우는 그 선후 관계를 말하기 어렵다.[11] 본고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방언 분포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는 동일

9) 劉昌惇(1971:44)에서는 ‘ᄃᆞ릐다:ᄃᆞᆼ긔다’, ‘겨누다:견주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자는 ‘ㄹ’과 비음의 대응이 문제가 되므로 제외하였고 후자는 현대국어만 보면 ‘겨누다’와 ‘견주다’로 본고의 예들과 같은 관계에 있는 쌍형어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중세국어형이 ‘견호다’와 ‘견주다’여서 다른 예들과는 다르다. 또 劉昌惇(1971:44)에는 ‘ᄃᆞᄆᆞ다:ᄃᆞᆷ그다’도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어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그네’(鞦韆)의 방언형 ‘그늬’류와 ‘근듸’류의 관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최전승(2009)에 따르면 이들 두 부류는 서로 다른 기원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0) (2ㄴ)에서 (ㄹ)까지의 쌍형은 모두 익숙하나 (ㄱ)의 ‘거니다, 겨닉다, 흐늘다’는 익숙하지 않아 보이므로 중세국어의 용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거니다: 거닐 졔 濟(『光州千字文』 24), 겨닉다: 겨닉디 몯거ᄂᆞᆯ(『內訓』 3:54), 흐늘다: 막대 흐늘오(『南明集諺解』 75)’. 근대국어에서 보이는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니다: 스스로 싐 가온대 빠뎐더니 거녀셔 이튼날 다시 사라셔(『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1:68), 겨닉디 몯ᄒᆞ닉(『諺解胎産集要』 49)’.

11) 이런 판별의 어려움은 ‘비음+장애음’형과 ‘비음’형의 공존이 방언 차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묻지-’와 ‘무니-’, ‘견딕-’와 ‘겨닉-’의 공존을 방언 차용으로 본 것은 李基文(1991) 참고). 차용은 언어내적 요인이 아니므로 일반적 판별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 조건을 전제로 하면 탈락이든 첨가든 그 변화에 의한 방언형의 분포는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 의지한 것이다. 이 가설을 본고의 논의에 대입해 보면, '비음+장애음' 연쇄를 가진 방언형과 '비음'만을 가진 방언형이 있을 때, 전자에서 탈락에 의해, 혹은 후자에서 첨가에 의해 다른 하나가 나왔다면 이 두 방언형의 분포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어휘들에서 모두 유사할 것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기갑(1986:47)에 따라 "蜻"(잠자리)의 방언형 '자마리'를 '잠자리'에 있는 'ㅈ'의 탈락에 의한 것이라 할 때, 같은 조건을 가진 '거머리'와 '아가미'의 방언지도가 '잠자리'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이들 역시 같은 종류의 탈락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본고의 쌍형어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 보이는 몇 단어를 대상으로 문헌자료와 방언분포의 확인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관찰해 보고자 하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전국의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모형적인 논의로서 '잠자리'(蜻), '거머리'(蛭), '아가미'(腮)를 대상으로 하되 방언형 및 그것의 분포를 특정 지역(주로 전남)으로 제한해서 변화의 방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헌자료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蜻"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존자리, 존ᄌᆞ리, 잔ᄌᆞ리'로 나타난다.

(3) "蜻"의 문헌형

ㄱ. 존자리: 數업슨 존자리ᄂᆞᆫ ᄀᆞᄌᆞ기 오ᄅᆞᄂᆞ리거ᄂᆞᆯ(『杜詩諺解(初刊本)』 7:2)/므레 다히ᄂᆞᆫ 존자리ᄂᆞᆫ ᄌᆞ조 ᄂᆞ놋다(『杜詩諺解(初刊本)』 11:19-20)/蜓 今俗呼蜻蜓 존자리(『四聲通解』 하:49)/蜻蜓子 존자리(『同文類解』 하:42)/螞螂 존자리(『漢淸文鑑』 14:51)

ㄴ. 존ᄌᆞ리: 존ᄌᆞ리 蜻蛉(『物譜』 비충)

ㄷ. 잔ᄌᆞ리: 잔ᄌᆞ리 蜻蜓(『柳氏物名攷』 二:곤충)

“蛭”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주로 ‘거머리’로 나타나고 일부 문헌에서 ‘巨末伊, 검어리’로도 나타난다.

(4) “蛭”의 문헌형[12)]
ㄱ. 巨末伊: 巨末伊(『鄕藥採集月令』 5(1431))
ㄴ. 거머리: 거머리(『訓蒙字會』 상:12) 등
ㄷ. 검어리: 검어리 ᄲᅪ리ᄂᆞᆫ 법은(『諺解胎産集要』 74)
ㄹ. 거멀: 蛭을 거멀이라 ᄒᆞᆷ은 居沒이니, 蛭은 水에 居ᄒᆞᄂᆞᆫ 者ㅣ니라(『東言考略』 60(1908))

“䰟”은 근대국어에서 그 형태 ‘아감이’를 발견할 수 있다.

(5) “䰟”의 문헌형: 고기 아감이(『譯解類解』 하:38b), 고래 아감이 ᄲᅧ로 ᄆᆡᆫ든 활(『漢淸文鑑』 5:4)

(3)-(5)를 통해, “蜻”은 ‘존자리’형, “蛭”은 ‘거머리’형, “䰟”의 ‘아 가미’형이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라 하겠다. 종합하면, “蜻”은 현대국어의 중부방언과는 달리 ‘ㄴㅈ’형을 보이고 있고 “蛭”과 “䰟”은 중부방언과 같이 ‘ㅁ’형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언형과 그 분포를 확인해보자. 여기서는 그 방언분포가 인상적인, 즉 등어선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역인, 주로 전남 방언으로 그 방언형과 분포의 확인을 한정하여 ‘비음+장애음’형과 ‘비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전남 방언에서 “蜻”은 ‘잠자리’와 ‘자마리’, “蛭”은 ‘검자리’와 ‘거마리’, “䰟”은 ‘아(ㄹ)감지’와 ‘아가미’ 등으로 나타나, ‘ㅈ’의 유무에 따라 ‘ㅁㅈ’형(잠자리, 검자리, 아감지)과 ‘ㅁ’형(자마리, 거마리, 아가미)으로 나눌 수 있다.

---

12) ‘巨末伊’와 ‘거멀’은 김민수 편(1997:53)에서 가져온 예이다. 그런데 ‘거멀’은 ‘거멀이’로도 볼 수 있으나 ‘거멀’이든 ‘거멀이’이든 본고의 논의와는 무관하므로 김민수 편(1997:53)을 따르기로 한다.

우선 “蜻”의 방언형에 대해 알아보자. 이기갑(1986:183)에 의하면 “蜻”은 전남 방언에서 ‘잠자리, 짬자리, 점자리, 자마리, 잠마리, 남자리’로 나타난다. 이중 기원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남자리’를 제외하면 “蜻”은 ‘잠자리, 짬자리, 점자리’의 ‘ㅁㅈ’형과 ‘자마리, 잠마리’의 ‘ㅁ’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ㅁㅈ’형은 전남의 동쪽에서 나타나고 ‘ㅁ’형은 서쪽에서 나타난다.[13]

다음으로 “蛭”의 방언형에 대해 알아보자.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韓國方言資料集 Ⅵ』(전라남도 편)에 따르면 “蛭”은 전남 방언에서 ‘검자리, 검저리, 거마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검자리, 검저리’의 ‘ㅁㅈ’형과 ‘거마리, 거머리’의 ‘ㅁ’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검자리, 검저리’의 ‘ㅁㅈ’형은 전남의 동남쪽에서 나타나고 ‘거마리, 거머리’의 ‘ㅁ’형은 서북쪽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腮”의 방언형에 대해 알아보자.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韓國方言資料集 Ⅵ』(전라남도 편)에 따르면 “腮”는 전남 방언에서 ‘알감지, 아감지, 알가미, 알개미, 아개미, 아그미’와 기원을 달리 하는 그 외의 방언형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기원이 다른 방언형을 제외하면 “腮”는 ‘ㅈ’의 유무에 따라 ‘알감지, 아감지’의 ‘ㅁㅈ’형과 ‘알가미, 알개미, 아개미, 아그미’의 ‘ㅁ’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방언형들의 분포는 기원이 다른 방언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알감지, 아감지, 알가미, 알개미, 아개미, 아그미’의 분포도 산뜻하게 나눠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만의 방언분포를 가지고는 무어라 말하기 힘든데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韓國方言資料集 Ⅷ』(경상남도 편)을 참고하면 서부경남과 남부경

13) 이기갑(1986:47)에 의하면 ‘ㅁㅈ’형에서 ‘ㅈ’이 탈락한 것이 ‘ㅁ’형으로서, ‘잠자리>자마리’의 통시적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ㄹ’ 뒤의 ‘ㄱ’의 탈락과 ‘ㅸ’과 관련 있는 ‘ㅂ’의 탈락(예를 들면 전자는 ‘돌가지:도라지’(桔)에서, 그리고 후자는 ‘소불:솔’(薤)에서 ‘ㄹ’과 ‘ㅂ’의 탈락을 볼 수 있다.)을 ‘잠자리>자마리’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의 서너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알감지’의 ‘ㅁㅈ’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의 “蜻”, “蛭”의 방언분포와 같이 “腮”의 방언분포도 역시 동서로 나눠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韓國方言資料集 Ⅴ』(전라북도 편)에서는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蜻”, “蛭”, “腮”의 방언형들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분포를 종합해 보면, 세 단어의 등어선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동쪽의 ‘ㅁㅈ’형(잠자리, 검자리, 아감지)과 서쪽의 ‘ㅁ’형(자마리, 거마리, 아가미)으로 세 단어의 방언형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蜻”, “蛭”, “腮”의 방언 분포(전라남도의 경우)

‘ㅁ’형 (자마리, 거마리, 아가미)	‘ㅁㅈ’형 (잠자리, 검자리, 아감지)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6′) “蜻”, “蛭”, “腮”의 방언 분포(전라남도의 경우)

‘비음’형	‘비음+장애음’형

위에서 “蜻”, “蛭”, “腮”의 방언형과 문헌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방언형은 ‘ㅁㅈ’형과 ‘ㅁ’형으로 나눌 수 있고 문헌형은 ‘ㄴㅈ’형을 보이는 “蜻”과 ‘ㅁ’형을 보이고 있는 “蛭”과 “腮”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蜻”, “蛭”, “腮”가 ‘ㅁㅈ’형과 ‘ㅁ’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작업가설로서 현대국어의 방언형은 문헌어의 형태로부터 변화한 것이라 가정하기로 하자. 그러면 “蜻”의 방언형 중 ‘잠자리’는 문

헌형 ‘존자리’로부터 ‘ㄴ>ㅁ’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14] ‘자마리’는 ‘ㄴ>ㅁ’의 변화와 ‘ㅈ’ 탈락을 순서대로 겪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15] ‘ㆍ’의 변화는 논외로 한다.

(7) “蜻”의 변화 과정(잠정적 과정1)
ㄱ. 잠자리 - 존자리>잠자리(ㄴ>ㅁ)
ㄴ. 자마리 - 존자리>잠자리(ㄴ>ㅁ)>자마리(‘ㅈ’ 탈락)

“蛭”과 “䗪”의 방언형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아래와 같은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8) “蛭”과 “䗪”의 변화 과정(잠정적 과정1)
ㄱ. “蛭”: 검저리 - 거머리>검저리(‘ㅈ’ 첨가)
거머리 - 거머리>검저리(‘ㅈ’ 첨가)>거머리(‘ㅈ’ 탈락)
ㄴ. “䗪”: 아감지 - 아가미>아감지(‘ㅈ’ 첨가)
아가미 - 아가미>아감지(‘ㅈ’ 첨가)>아가미(‘ㅈ’ 탈락)

“蜻”, “蛭”, “䗪”의 변화 과정이 동일하다면 ‘자마리’가 ‘ㅈ’의 탈락을 거쳤으므로 방언형 ‘거머리’와 ‘아가미’의 경우도 ‘ㅈ’ 탈락을 거치기 위해서는 ‘ㅈ’이 첨가된 후 그 ‘ㅈ’이 다시 탈락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첨가된 후 다른 변화가 개입되지 않은 채 탈락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머리’와 ‘아가미’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14) ‘ㄴ>ㅁ’ 변화는 ‘먼추->멈추-’(止)에서 볼 수 있다. 한편 許雄(1957:264)은 ‘존자리’의 자음 넷이 모두 설단음이어서 그중 ‘ㄴ’이 ‘ㅁ’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존자리>잠자리’(蜻)의 ‘ㄴ>ㅁ’ 변화를 이화로 보고 있다.

15) ‘ㅈ’ 탈락이 ‘ㄴ>ㅁ’ 변화에 선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이 순서대로라면 ‘존자리>즌나리>즈마리’여야 하는데, ‘즌나리(자나리)’형이 문증되지도 않고 방언에서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모음 사이의 ‘ㄴ>ㅁ’의 예를 달리 찾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곤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영하여 (8)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9) “蛭”과 “腮”의 변화 과정(잠정적 과정2)
ㄱ. “蛭”: 검저리 - 거머리>검저리(‘ㅈ’ 첨가)
거머리 - 거머리⇢거머리(변화 없음)
ㄴ. “腮”: 아감지 - 아가미>아감지(‘ㅈ’ 첨가)
아가미 - 아가미⇢아가미(변화 없음)

이 (9)의 변화 과정을 상기하면서 “蜻”의 변화 과정을 다시 생각 해 보면, ‘자마리’ 역시 ‘ㅈ’ 탈락을 겪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ㅈ’이 없는 ‘거머리’와 ‘아가미’를 고려하면, 기원적으로 ‘*ᄌᆞ마리’가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10) “蜻”의 변화 과정(잠정적 과정2)
ㄱ. 잠자리 - *ᄌᆞ마리>좀자리(‘ㅈ’ 첨가)
ㄴ. 자마리 - *ᄌᆞ마리⇢자마리(변화 없음)

(7)에서 (10)까지의 논의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언형 ‘자마리’를 설명하기 위해 (7)과 같이 ‘ㅈ’ 탈락의 입장을 취하면 (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ㅈ’의 첨가와 탈락을 연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위 (10)의 변화 과정을 상정한다면 ‘자마리’와 ‘잠자리’의 관계는, 이기갑(1986:47)의 논의와 같이 전자에서 ‘ㅈ’이 탈락한 것이 후자인 것으로, 즉 ‘잠자리>자마리’의 통시적 변화를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이를 ‘ㄹ’ 뒤의 ‘ㄱ’과 ‘ㅱ’과 관련 있는 ‘ㅂ’의 탈락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게 되는 문제 및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보이는 ‘존자리, 존ᄌᆞ리, 잔ᄌᆞ리’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 ‘ㅂ’ 등이 아니라 ‘ㅈ’이 첨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통시적 관점에서는 탈락과 첨가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6] 하지만 탈락이든 첨가이든 (6)과 (6′)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방언 분포들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비음:비음+장애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언형의 분포는 대체로 그 등어선이 남북으로 흐르고 이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음운 변화를 거친 것에 기인한다고 본고는 판단하고 있다. 방언형의 상이는 어원적인 혹은 기원적인 형태론적 구성이 다르거나 그 적용된 음운 변화의 상이로부터 결과된다고 할 때, 어원적인 혹은 기원적인 형태론적 구성의 상이는 방언형의 방언분포가 상대적으로 불규칙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음운 변화의 적용 여부로부터 결과된 방언형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탈락이든 첨가이든 음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대규칙(major rule)에 의한 것이든, 소규칙(minor rule)에 의한 것이든,[17] 그 방언 분포의 전체적인 구획은 선명한 것이 일반적이겠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부사 '벌써'와 '먼저'를 대상으로 하여 이 두 단어의 방언 분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

16) '비음'형과 '비음+장애음'형의 방언 공존형으로 '하마트면:함바트면, 가르마:가름바, '까뮈기:깜뷔기'(최전승(2009:56)에 실린 이진호(전남대) 교수의 언급)도 있다. 이들 예를 통해서도 탈락과 첨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하마트면:함바트면, 가르마:가름바'의 예를 보면 각각의 전자로부터 첨가에 의해 후자가 나온 것이라 하여야 하겠고, '까뮈기:깜뷔기'의 예에서는 탈락에 의해 '까뮈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겠기 때문이다.

17) 소규칙에 의한 변화의 방언형은 대규칙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하거나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어 분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대규칙'과 '소규칙'을 각각 'major rule'과 'minor rule'의 역어로 취한 것은 최전승(2004:167)을 따른 것임).

4. ‘벌써’와 ‘먼저’의 경우

부사 ‘벌써’(旣)와 ‘먼저’(先)는 각각 ‘버러’와 ‘머녀’로 나타나는 방언형이 있다. 이 방언형은 ‘벌써’ 및 ‘먼저’와,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해 온 통시적 탈락 혹은 첨가의 관계에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한다. 본고는 장애음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쌍형어들의 공존을 관찰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들 공존과 관련되어 있는 예들 중, 현대국어의 방언자료에서 그 공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벌써’와 ‘먼저’의 예를 중심으로 이들 공존형에 대한 해석, 즉 탈락과 첨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음+장애음:비음’의 쌍형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방언형으로 ‘버러’가 있는 ‘벌써’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공명음+장애음:공명음’의 관계로 이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와 ‘먼저’를 논의의 대상 으로 선정한 이유부터 소개하여야 하겠다.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두 단어는 ‘버러’와 ‘머녀’의 방언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쌍형어들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바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벌써’는 ‘비음’을 중심으로 해 왔던 본고의 논의를 ‘공명음’으로 확대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라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었고, ‘먼저’는 앞 장의 ‘잠자리, 거머리, 아가미’와 여러 모로 비슷하여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물론 ‘잠자리, 거머리, 아가미’에는 비음 ‘ㅁ’이 들어 있어 ‘ㄴ’이 들어 있는 ‘먼저’와는 다소 다르나 ‘먼저’와 함께 ‘ㅈ’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자리’의 문헌형 ‘존자리’를 고려하면 그 공통점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벌써’와 ‘먼저’의 중세국어형은 ‘불써’와 ‘몬져’로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ㅓ’로 끝난다는 점까지 같다. 이런 세 가지 면을 고

려하여 이 두 단어가 본고의 논의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본 장 앞 부분에서 제시한 문제 중 첫 번째, 즉 '벌써'(旣)와 '먼저'(先)의 방언형들은 각각 통시적 탈락 혹은 첨가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벌써'의 방언형과 '먼저'의 방언형들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와 그것의 방언형 '버러'는 탈락 혹은 첨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적 구성이 다른 것으로 본고는 보고자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둘은 기원적으로 두 형태소의 결합형과 단일형태소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들의 중세국어형은 '불써'와 '몬져'로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로부터 이들 형태가 기원적으로 단일어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11)에서 볼 수 있는 '불써'와 '몬져'는 어두음절의 모음은 양성모음이고 어말음절의 모음은 음성모음이어서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던 것이다.[18] '벌써'와 '먼저'는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나타난다.

(11) '벌써'와 '먼저'의 문헌형[19]
ㄱ. '벌써': 그듸 가 들찌비 불써 이도다(『釋譜詳節』 6:35)
불셔 고텨 잇ᄂᆞ니(早修起了, 『飜譯老乞大』 上:26)
ㄴ. 먼저': 先은 몬졔오(『月印釋譜』 序:15)
몬져 맛보시고(『內訓』 1:8)

---

18) 부사 '새려(新), 오히려(猶), ᄒᆞ물며(況)' 등도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은 점을 본고의 '불써, 몬져'와 공유하고 있다(이는 안대현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임을 밝혀둔다.). 이중 '새려'는 어기 '새'에 부사파생접미사 '-려'가 결합된 것(박진호 2003)으로 본다면 모음조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오히려'의 경우도 용언 어간의 말음절의 '이'나 Vy형의 이중모음에서의 y 뒤에서 음모음으로의 실현이 우세한 점(金完鎭 1985:10,14)을 고려하면 역시 모음조화의 문제는 논외가 된다고 하겠다. 'ᄒᆞ물며'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는 바가 없다.

19) '벌써'의 문증형과 통시적 변화 양상은 杉山豊(2009:152-154), 그리고 '먼저'의 문증형은 이상억(2007:73, 2008:234-236)과 최전승(2004:157-166) 참고.

위 (11ㄱ)의 '볼셔'에 대해 민현식(1992:706-709)은, '볼셔'(旣)는 중세국어의 어간형 부사 'ᄇᆞᄅᆞ(急)'와 '이셔'(在)의 통합에 의한 것이거나 중세국어의 'ᄇᆞ라'(ᄇᆞᄅᆞ-(急)+-아)와 '이셔'(在)의 통합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는 중세국어의 '이믜셔'(旣)를 '이미'(先)와 '이셔'(在)의 통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20] 이렇게 보면 '볼쎠'는 대략적으로 말해 '볼' 부분과 '쎠' 부분으로 나눠지고, 만약 이 논리가 '몬져'에도 통할 수 있다면 '몬져' 역시 '몬' 부분과 '져'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현대국어의 '벌써'와 '버러'의 공존, 그리고 '먼저'와 '머녀'의 공존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버러'는 '볼쎠'의 '볼', 특히 'ᄇᆞᄅᆞ' 부분과만 관련되어 있고 '머녀'는 '몬져'의 '몬' 부분과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와는 달리 '먼저'는 두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전승(2004:157-166)는 제주방언의 'ᄆᆞᆫ저, ᄆᆞᆫᄌᆞ' 등에 주목하여 중세국어보다 앞선 시기의 '*ᄆᆞᆫ져'를 재구하였다. 이 재구형 역시 모음조화를 따르고 있지 않으나 역시 제주방언의 'ᄆᆞᆫᄌᆞ'를 고려하여 '*ᄆᆞᆫᄉᆞᄉᆞ'를 재구하면 모음조화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기에 '볼쎠' 역시 두 번째 음절에 'ㅕ'를 가지고 있고 경남의 '볼사로'(崔鶴根 1978:1103)와 함흥의 '발싸'(鄭源石・徐潤煥 2010:49)와 같은 방언형이 있어 'ㅆ(yʌ)'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나 제주의 방언형(小倉進平(1944:488)의 '볼서, 붓서', 金亨奎(1974:358)의 '발써', 崔鶴根(1978:1103)의 '바서, 벌써, 볼써')의 두 번째 음절이 모두 'ㅓ'여서 그 가능성을 낮게 한다.[21]

둘째, '벌써'와 '먼저'의 방언형은 그 분포 양상이 다르다. 다음은 이들의 방언형 중 장애음이 없는 방언형과 그 분포지역이다.

---

20)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보이는 '볼쎠'의 둘째 음절의 경음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난제로 남겨두고 있다.

21) 'ㅆ(yʌ)'에 대해서는 李基文(1997:125-127) 참고.

(12) ‘벌써’와 ‘먼저’의 방언형
ㄱ. ‘벌써’: 버러(경북 경주, 경남 울산)
ㄴ. ‘먼저’: 머녀(충북 진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전북 진안, 경남 함양), 머넝(전북 옥구, 고창), 머냐(전북 김제), 모냐(전북 순창, 남원, 전남 영광, 함평, 광산, 신안, 무안, 나주, 영암, 진도, 강진, 보성, 완도), 모녜(전남 구례), 머여(경북 영일, 달성), 머이(경남 밀양)

위 (12)는 ‘벌써’와 ‘먼저’의 방언형 중 장애음이 없는 방언형과 그 출현지를 정리한 것이다. ‘벌써’에 장애음이 없는 방언형으로는 (ㄱ)의 ‘버러’밖에 없는 듯하고(경주의 ‘버러’는 필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임) 그나마『韓國方言資料集』등의 기존 방언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술자료집에서는 ‘버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 경북 경주의 예로 ‘문전대감이 갈 때 버러 그럴 줄 알고 했그던.’(7-2:160), ‘이거 뺏깄지러 버러’(7-2:171) 등이 있고 경남 울산의 예로 ‘이래서 중들이 와 하고 그 저 절 뒷산에 갔는데, 그때는 버러 묘룰 다 쓰고’(8-12:64), ‘동래성은 버러 포위가 돼 있고’(8-12:83) 등이 있다. 이들 자료로부터 볼 수 있듯이 ‘버러’는 경상도의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이, ‘비음+장애음:비음’의 쌍형어 중,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방언분포를 보고 내린 결론이기는 하나, 장애음의 보유는 한반도의 동쪽으로 갈수록 흔하고 장애음의 비보유는 한반도의 서쪽으로 갈수록 흔한 점을 볼 때 ‘벌써’는 ‘비음+장애음:비음’의 예와는 관계가 없을 듯하다. 특이하게도, 인접하고 있는 경주와 울산에서만 ‘버러’형이 발견되고 있어 방언 분포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벌써’의 방언형 ‘버러’ 등은 탈락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벌써’의 장애음 역시 탈락 혹은 첨가와는 무관한 존재일 가능성이 큼을 말할 수 있다.

'먼저'는 위의 '벌써'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위의 (12ㄴ)은 '먼저'의 방언형 중 장애음 'ㅈ'이 없는 방언형과 그 출현지를 정리한 것으로서, 앞의 3장에서 『韓國方言資料集』을 중심으로 '잠자리' 등의 방언 분포를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韓國方言資料集』(Ⅱ. 73)의 '먼저' 항목을 정리하여 그 방언 분포를 확인하였다. 방언 분포는 다음과 같다. 'ㅈ'이 없는 방언형들은 전라와 충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경상에서는 서너 군데에서만 산발적으로만 보인다. 그 결과, '먼저'의 방언 지도는 전라방언과 충청방언이 한쪽으로 묶이고 경상방언이 다른 한쪽으로 묶이는 분포를 보여 주어, '먼저'의 방언형 '비음:비음+장애음'은, 경기와 강원을 제외할 때, 대체로 남북으로 흐르는 등어선을 보여 주어 3장에서 보았던 '잠자리, 거머리, 아가미'와 그 방언 분포의 양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방언 분포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본고는 '먼저' 역시 '잠자리' 등이 겪은 음운 변화를 동일하게 겪었을 것이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런 점들을 통해 우리는 '먼저'와는 달리 '벌써'와 관련되어 있는 방언형, '벌써'와 '버러'는 그 기원적인 형태론적 구성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특히 '벌써'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쌍형어의 문제를 '공명음+장애음:공명음'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정된 단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음이 포함된 쌍형어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벌써'의 장애음은 탈락 혹은 첨가와는 무관한 존재일 가능성이 큼을 말할 수 있고 또 '벌써'를 본고의 장애음 논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쌍형어의 관계를 '공명음+장애음:공명음'보다는 '비음+장애음:비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나을 것임을 알 수 있다.[22]

---

22) 유음이 포함되어 '공명음:공명음+장애음'으로 그 성격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지금의 필자로서는 명확한 말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단 '벌써'만을 대상으로 하여 말하자면 '비음:비음+장애음'에서의 장

본 장을 마치기 전에, 『韓國方言資料集』(Ⅱ. 73)의 '먼저' 항목을 바탕으로 정리한 위 (12ㄴ)의 자료 및 이에 의거한 방언 분포와는 다소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그것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아래 (13)은 『韓國方言資料集』을 제외한 방언자료집에 나오는 '먼저'의 방언형 중 장애음 'ㅈ'이 없는 방언형을 정리한 것이다.

(13) '먼저'의 방언형
ㄱ. 모냐(전남 영암), 머녀(충북 진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머여(경북 경주), 멍이(경북 청도, 경남 동래), 멍여(경남 합천, 밀양)
ㄴ. 머여(봉화, 군위, 예천, 영천, 청송, 안동), 머예(영덕), 머이(구미, 경주, 성주, 영덕)

자료의 출처부터 소개한다. (ㄱ)의 영암과 경주의 자료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이며 충북의 '머녀'는 全哲雄(1999:108)의 것이고[23]

애음은 모두 평음이라는 점에서 '벌써(<볼쎠)'의 경음이 그 한 이유가 되지 않나 한다. 평음이 중요한 조건이라면, 김현(1997:32)에 따르면 중세국어 시기에 형태소 내부에서 'ㄹㅆ' 연쇄는 존재했으나 'ㄹㅅ' 연쇄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유음이 포함된 '공명음:공명음+장애음'의 쌍형어는 존재할 수 없는 셈이 된다. 이 쌍형어의 장애음은 공명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ㄹ'의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유사한 'ㅅ'이 그 장애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ㄹㅅ' 연쇄는 중세국어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 앞 (2ㄹ)의 '여믈다:염글다'나 'ㄴ'의 장애음 쌍으로 'ㅈ'이 선택된 예들은 다른 것들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문헌자료로 『女小學』(2:29, 6:53)에 '먼여'가 보이는데 이 『女小學』은 19세기 말의 충북방언을 반영하고 있어(洪允杓 1990:4) 좋은 참고가 된다. 다른 문헌자료로 차자표기자료에서 '먼저'는 '先亦'(『大明律直解』 1:11, 2:1, 3:5, 12:6, 14:12)으로 나타난다. 이 '先亦'은, '먼여'로 읽고 있는 장세경(2001:108)과 1937년의 『吏讀集成』의 '먼여'(韓相仁(1993:136)에서 재인용)를 고려하면 역시 '몬여' 정도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 裵大溫(2002:244)는 중세국어에서 '몬여'가 확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韓相仁(1993:136)은 『吏讀集成』의 '먼여'는 방언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경상방언 ‘멍이’와 ‘멍여’는 金亨奎(1974:34)의 것이다. (ㄴ)은 경북 자료로서 모두 이상규(2000:209-210)의 것이다. 이 (13)의 자료로부터 충북과 경북은 장애음 ‘ㅈ’이 없는 방언형, 즉 ‘머녀(>머여)’ 등이 석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외 지역에서도 이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므로 이 ‘머녀’ 등의 방언형이 충북 이남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다.[24] 이렇게 보면 ‘먼저’의 ‘비음+장애음:비음’의 방언 분포는, 장애음이 없는, 즉 ‘머녀’류의 방언형이 그 판도를 충북 이하에 두고 있어, 남북으로 흐르는 등어선을 보여주는 3장의 ‘잠자리’ 등의 방언 분포와는 다름을 알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위 (12ㄴ)에서 보았던 『韓國方言資料集』의 자료와도 그 분포가 다소 다름을 알게 된다. (12ㄴ)에 의한 방언 분포가 3장의 ‘잠자리’ 등과 같아 ‘먼저’와 ‘잠자리’ 등이 동일한 변화를 거쳤다고 결론 내렸던 만큼 (13)의 방언 분포에 의존하면 ‘잠자리’ 등과 ‘먼저’는 꼭 동일한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자료와 그 해석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되,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잠자리’ 등과 ‘먼저’ 모두를 동일한 자료집 『韓國方言資料集』에 의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점을 중시하여 (12ㄴ)을 통해 내린 결론을 본고의 입장으로 삼고자 한다.[25]

5. 결론

본고는 이른바 쌍형어의 두 어형 중 어느 것이 구형 혹은 신형

---

24) 이상규 · 신승용(2010:294)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머여, 머이, 머예’ 등의 장애음 없는 방언형이, 그리고 경남에서는 ‘먼첨, 먼청, 몬침, 먼지’ 등의 장애음 있는 방언형과 ‘머이’ 등이 광범위하게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25) 물론 『韓國方言資料集』의 방언형에 비해 이상규(2000)의 방언형 (13ㄴ)은 『韓國口碑文學大系』 등의 구술자료로부터 수집한 방언형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훨씬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 판별 기준에 따라 장애음의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어형의 신·구형 판별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벌써'와 '먼저', 그리고 그 외의 몇몇 어휘의 문헌형과 방언형을 관찰하여, 어떤 방언형이 탈락과 첨가 중 어느 쪽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혹은 탈락이나 첨가와는 관련 없는 존재인지 하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어사 자료와 방언 자료의 검토를 통해 어떤 음소를 가지고 있는 쪽과 없는 쪽이 모두 나올 때 이들은 탈락에 의한 설명과 첨가에 의한 설명 모두가 가능하지만 방언 자료 및 방언 지도의 해석은 더 나은 설명 방식을 암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어떤 방언형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음운 변화를 거쳤을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언 분포 역시 그 대체적 모습이 유사할 것임을 가설로 하였다. 둘째, 본고의 신·구형 판별 기준을 통해 특정 단어의 어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탈락에 의한 것이라면 음소가 있는 쪽이 좀 더 고형일 것이고, 반대로 첨가에 의한 것이라면 음소가 없는 쪽이 좀 더 고형일 것이므로, 이렇게 선정된 고형을 바탕으로 어원에 대해 말해야 그 바탕이 명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벌써'의 방언형 '버러'의 방언 분포는 3장에서 보았던 어휘들의 방언 분포와는 많이 달랐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들 쌍형어의 모습을 보이는 방언형의 차이는 탈락이나 첨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원적인 면으로부터 기인하는 차이라 보았다. 셋째, 탈락이든 첨가이든 비음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적어도 유음은 장애음의 탈락과 첨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두어 가지 아쉬움을 언급하며 본고

를 마치고자 한다. 우선, 방언 지도의 해석, 즉 방언형의 분포에 의한 변화의 유형 분류는 아직 가설 이상의 것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본고에서는 이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변화와 방언 분포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본고를 기획할 때의 의도는 '비음+장애음:비음'의 방언형 쌍들이 거쳐온 변화를 탈락과 첨가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좀 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 자료의 통시적 해석에 있어서도 너무 기계적이었지 않았나 한다. 특히 문헌형 역시 방언형일 수 있으므로 현대 국어의 방언형과는 그 방언적 기원이 다를 여지가 있음에도 문헌형으로부터 현대국어의 방언형이 나온 것으로 간주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 앞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본고를 접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민수,『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金完鎭,「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硏究」,『韓國文化』 6,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85, pp. 1-22.
金履浹,『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김주석 · 최명옥,『경주 속담 · 말 사전』, 한국문화사, 2001.
김태곤,『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2008.
金亨奎,『韓國方言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4.
김현,「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南廣祐,『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1997.
민현식,「부사의 어원 몇 가지」,『蘭臺 李應百博士 古稀紀念論文集』, 한샘, 1992, pp. 703-714.

박진호,「중세국어의 부사 파생 접미사 '-뎌/려/다/라'에 대하여」,『형태론』5-1, 박이정, 2003, pp. 23-30.
박홍길,『어휘 변화의 원인별 연구』, 한국문화사, 1998.
裵大溫,『吏讀文法素의 通時的 硏究』,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2.
소신애,「파찰음 앞 /ㄴ/ 삽입 현상에 관하여」,『국어국문학』154, 국어국문학회, 2010, pp. 5-32.
安秉禧,『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硏究』, 塔出版社, 1978.
劉昌惇,『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64.
劉昌惇,『語彙史 硏究』, 宣明文化社, 1971.
이기갑,『전라남도의 언어지리』, 塔出版社, 1986.
李基文,「動詞 語幹「앉-, 엱-」의 史的 考察」,『陶南 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陶南 趙潤濟博士 回甲紀念 事業會, 1964, pp. 341-350.
李基文,『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1997.
李基文,「國語 語彙史의 한 側面」,『國語 語彙史 硏究』, 東亞出版社, 1991, pp. 33-42.
李基文,「語源 硏究의 뒤안길」,『韓國語硏究』9, 韓國語硏究會, 2012, pp. 25-111.
이상규,『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이상규・신승용,『문학 속의 경상 방언』, 글누림, 2010.
이상신,「전남방언의 '머크-'와 '멍크-'에 대한 통시적 연구」,『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2008, pp. 39-64.
이상억,『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이상억,『조선시대 한국어 용언의 음변화 연구』, 박이정, 2008.
이현희,「중세・근대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 139-155.
李浩權,「釋譜詳節의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장세경,『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全哲雄,『忠北方言의 單語 變遷史』, 보고사, 1999.
鄭源石・徐潤煥,『咸興地方方言集』, 한국 어린이 문화 연구소, 2010.

최전승,「국어 방언사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2004, pp. 143-194.
최전승,「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그네'(鞦韆)의 방언형 '근듸' 계열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일 고찰」,『국어사와 국어방언사와의 만남』, 역락, 2009, pp. 17-66.
崔鶴根,『韓國方言辭典』, 玄文社, 1978.
韓國精神文化硏究院,『韓國方言資料集 Ⅰ-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7-1995.
韓相仁,「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許雄,『國語音韻論』, 正音社, 1957.
洪允杓,「女小學 解題」,『女小學』, 弘文閣, 1990, pp. 1-5.

杉山豊,「近代 韓國語의 副詞 '불셔'의 意味·用法에 對하여 - 漢語『老乞大』·『朴通事』 諺解類의 原文과 諺解文의 對照를 通하여」,『국어학논집』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역락, 2009, pp. 151-167.
小倉進平,『朝鮮語方言の硏究 上卷』, 岩波書店, 1944.

On the Diachronic Deletion and Insertion of Obstruent

Lee, Sang-Si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 of ‘nasal+obstruent’ and ‘nasal’. By an interrogative sentence my aims can be summarized: Was ‘nasal+obstruent’ made by adding ‘obstruent’ at ‘nasal’? Otherwise was ‘nasal’ made by deleting ‘obstruent’ at ‘nasal+obstruent’? In other words, the verification of the rationality of addition and deletion of ‘nasal+obstruent: nasal’ is aims of this study, especially, ‘beolsseo’(“already”) and ‘meonjeo’(“formerly”). In ‘beolsseo’, there are rooms for reconsideration at etymology. Dialectally, the absence of obstruent is incontestably the characteristics of dialects of western-Korean, but there is obstruent in dialectal form of ‘beolsseo’ in western-Korean, especially Jeonnam subdialect. So in contrast of ‘meonjeo’, ‘beolsseo’ needs to be reconsidered at etymological views.

Key words: obstruent, nasal, sonorant, deletion, insertion, dialectal forms

이상신
소속: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전화번호: 031-219-2818
전자우편: tjfh92@ajou.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